테마칼럼 | 공간과 일상 | 현악의 양기 | 디자인 사상 | 과학과 정밀

근대문화유산과 등록문화재

천득염

"광주에는 전남도청 본관을 비롯한 서석초등학교, 조선대학교 본관 등 10점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문화재가 사라져가서는 안 된다."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자에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 흔적들이 역력하다. 한국적 정서가 가득한 우리의 문화재는 한국인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존재이다. 그러나 올해 초 수많은 국민의 절규에도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타버렸고, 광주에서도 며칠 전 근대 교육시설인 수피아여학교 건물이 사라졌다.

현재 광주시의 문화재는 총 128점이다. 이 중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이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고, 광주시가 지정한 것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민속자료이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는 15점이고 시지정문화재는 103점이며 등록문화재는 10점이다. 광주시에 있는 유일한 국보는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으로 국립광주박물관이 관리하고 있다. 15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광주시에 국보가 1점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아쉽다. 한편, 보물은 7점이 있는데 광주서오층석탑이나 동오층석탑,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정지장군 환삼 등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나뉘는데 이들이 어떻게 다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지정문화재란 흔히 문화재라고 지칭하여 왔던 국보, 보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등이다. 근래에 새롭게 도입된 등록문화재란 근대문화유산이 주를 이룬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들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 제작 ·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이나 지역의 역사 ·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결국,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에 비하여 격이 조금 떨어지고 형성된 지 얼마 안 되는 것, 혹은 개화기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건축물, 기념물, 산업시설 등으로서 그대로 방치하면 손상되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이다. 그러한 예로서 근자에 골목길, 등대, 교량, 터널, 공장, 소금창고, 담장, 탄광시설 등 참으로 재미있고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이 등록문화재가 되었다.

광주에는 전남도청 본관을 비롯한 서석초등학교, 조선대학교 본관, 수창초등학교 본관,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광주교육대학교 본관,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등 10점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문화유산의 대부분은 각종 개발 행위와 도시화 및 경제적 논리에 의해 철거, 훼손될 위기에 있다. 이미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남광주역사, 기생들의 생활공간인 권번, 일본식 주거였던 김용덕가옥 등이 우리의 무관심과 몰이해로 사라지고 말았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공적 개발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쉽게, 오히려 서둘러서 의미 있는 물리적 공간을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다.

등록문화재는 지금까지의 지정문화재 제도와는 다르게 당해 문화재의 외관보호를 주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내부는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변경하거나 수리·수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문화재들을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등록문화재를 소유, 관리하는 자에게는 관리비 일부와 세금 감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문화재가 사라져가서는 안 된다. 이제 문화재는 재산권의 제한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자긍과 명예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전남대 교수, 문화재 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순호

당뇨병도 고칠 수 있나요?

"예? 당뇨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당뇨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감 속에 병원을 찾은 환자는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질문을 한다. 어둡던 얼굴에 희망의 빛이 감도는 순간이다.

"그럼요. 나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부러 말끝에 힘을 주어 단정적으로 환자에게 말한다.

환자는 "이상하다, 당뇨병은 불치병이라고 하던데…"라며 말꼬리를 흐린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참 당뇨병 환자와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생각해보면 17년 전 내가 내분비내과장으로 진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대화를 가질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당뇨병 환자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한 환자가 나에게 전공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나는 무심결에 당뇨병이 전공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분은 좀 안됐다는 듯이 당뇨병 하나로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고 말을 건넬 정도였다. 당시 당뇨병 환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에 대한 걱정까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당뇨병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을까?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게 정답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먹고 싶은 만큼'이 '몸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과 같은 말은 아니다. 일단 필요 이상의 영양분이 섭취되면 우리 몸에서는 다음 기근에 대비해 쓰고 남은 영양분은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 기근이 오지 않게 됐고 동시에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 많아졌다.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상시 사용하려고 저장해 둔 지방이 사용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면서 오히려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나는 그 비극의 현장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다.

흘깃 눈길을 돌려 환자의 풍성한 허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덩어리들을 한 덩어리라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전략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다.

"만보기를 사시고 하루에 만 보 이상 걷도록 노력하세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꼭 세 끼를 드시고 간식은 먹지 마세요", "튀긴 음식보다는 굽거나 삶은 음식을 드세요", "술을 끊으세요"

환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하는 표정을 짓는다. 또 열심히 노력해서 체중을 줄여오겠다고 다짐을 하고 씩씩하게 진료실을 나선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미처 환자에게 못해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떠오른다. 사람의 생활태도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잠시는 노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런저런 핑계로 운동을 하지 않게 되고, 배부르게 먹기 시작하며 이어 술을 마시게 마련이다. 그리고 나의 '평생 환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잠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 그리고 자신의 허리가 왠지 풍성해 보이면 위의 원칙들을 한 번 적용해보자. 이 풍요의 시대에도 음지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광주기독병원 내분비내과장〉

기고

송기유

생활 속의 꿀단지 '인터넷 TV'

최근 통신과 방송, 가전과 통신이 융합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 시대를 맞아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TV 등 신규 사업 분야가 IT시장의 금맥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자와 시장의 관심이 높다.

실시간으로 TV방송까지 볼 수 있는 인터넷TV는 지난 4년간의 오랜 논쟁 끝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지난 11월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상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는 광주·전남지역에도 서비스 될 예정이다.

통신과 방송 융합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TV는 일반 가정에서 안테나선 대신 인터넷회선을 연결해 고화질의 TV 시청 및 각종 쌍방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서비스이다.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 인터넷TV라는 새 매체를 통해 더욱 많은 채널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라는 특성 때문에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골라 볼 수도 있다. 그야말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본격적으로 융합의 시대를 맞은 셈이다.

지상파, 케이블TV 방송처럼 소비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TV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쌍방향으로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주권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인터넷TV가 본격화되면 TV를 보다가 인터넷 뱅킹, 증권거래, 온라인 쇼핑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향후 금융, 교육, 쇼핑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다.

또, IT와 미디어산업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방송 업계는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그리고 위성방송도 HD급 방송으로 확대하여 인터넷TV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콘텐츠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채널 수는 날로 늘어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인터넷TV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 공급 환경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직접 콘텐츠에 참여하고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소비자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가 선호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또 고품질의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국내 통신업체들은 인터넷TV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면서 네트워크, 장비 보완 등의 앞선 기술과 서비스로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인터넷TV는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음성이 하나로 통합되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가는 길목에 서서 IT 수출확대와 국내경기의 회복 등 실물경제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미래성장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인터넷TV의 등장이 침체된 국내 IT시장의 기폭제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 통신·방송 융합 기술, 콘텐츠 산업의 육성이 IT 강국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는 디딤돌로, 우리 생활 속의 명품으로 좋은 꿀단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KT전남본부장〉

시설

'영산강 뱃길 복원' 한 목소리 필요하다

4대강 정비와 연관된 대운하 재개 논란이 증폭되면서 '영산강 뱃길 복원' 의 앞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정이 영산강 664억원 등 7천910억원을 내년 4대강 정비 예산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 야권이 대운하를 시도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하며 예산삭감 공세에 나선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4대강 정비가 대운하와 전혀 무관한 실물경기를 살릴 한국판 뉴딜정책이냐, 대운하 추진을 위한 우회상장이냐다. 4대강 치수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다면 얼마를 들여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필요한 논의는 없다. 정국 주도권 다툼만 하는 형국이다.

농업용수로도 쓰기 어려운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고 뱃길을 살려보겠다는 전남도로선 애가 타지 않을수 없다. 박준영 지사가 몸 담고 있는 민주당이 예산삭감의 선봉에 서있기에 더욱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말썽의 씨앗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 관계자, 외곽단체 등이 뿌렸다. 이들은 대다수 사람이 대운하를 하자고 하면 말자고 할 수 없다든가, 대운하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아리송한 발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여권은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매듭지었던 지난 6월로 돌아가야 한다. 정말 치수가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여권 핵심들이 "대운하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표현부터 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민주당도 지방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남도가 지역경제와 환경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무작정 예산부터 깎겠다는 태도는 지나치다. 영산강 뱃길 복원은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 아닌가. 지역국회의원들은 어디 갔는가. 한목소리가 필요한 때다.

사상 최대 폭 금리인하 효과 살리려면

한국은행이 어제 파격적인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금리를 사상 최대폭인 1%포인트 내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3%로 떨어졌다.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의 금융 부담이 크게 줄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의 반응은 우호적이다. 원화, 주가, 채권값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5.30원 내린 1,358.50원을 기록했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75% 오른 1,154.43으로 마감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4.44%로 전날보다 0.08%포인트, 3년 만기 국고채는 연 3.95%로 0.20%포인트 떨어지면서 모두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한·중·일 통화 스와프 확대, 미국 빅3자동차 구제금융이라는 호재도 한몫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고강도 금리 처방이 먹힌 것이다.

문제는 금리인하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 것이냐다. 약효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많다. 유동성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이 많긴 하지만, 바뀐 것은 분위기 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물경제가 침체일로다. 통화당국이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해 초강수를 둔 것이 그 증거다. 경기 선·동행지수, 민간소비, 산업활동 등 경기지표에 빨간불이 켜졌고, 버팀목이던 수출까지 급감했다. 금리인하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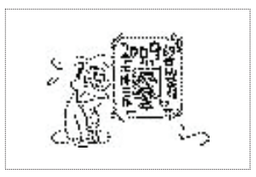
금리인하 효과가 실물경제까지 가게 하려면 대책은 하나뿐이다. 아무리 풀어도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의 원인부터 찾아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실물 부문에 자금을 공급해야 기업 실적이 좋아져 펀더멘털 개선을 통한 대세 상승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구조조정 등 기업들의 자구노력과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無等鼓

캘린더

몇십 년 전 우리나라 농어촌에서 볼 수 있었던 연말 연시의 삽화 하나. 마을 집마다 벽에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상징물이 나붙곤 했다. 다름 아닌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치후보생들이 '1년용 명함'으로 보내준 한장짜리 새해 캘린더였다.

달력에는 머리에 포마드를 발라 윤기나게 빗어넘기고 활짝 웃는 정치인의 사진을 중심으로 새해 1년 열두 달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벽보용 캘린더는 새해 달력 구하기 어려웠던 촌민들이나, 홍보수단으로 그만인 정치인들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그러나 세태의 변화와 함께 '얼굴 달력'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달력의 역사는 기원전 3000년께로 거슬러 간다. 상업이 활발했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날짜가 매우 중요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초승달-반달-보름달-초승달로 반복하는 각각 15일의 주기로 날짜를 세는 태음력(太陰曆)이 발달했다. 반면 나일 강의 범람으로 농경이 발달한 이집트 문명권에서는 강의 범람 시기를 알기 위해 땅에다가 해가 지는 것을 표기했다. 이를 보고 만든 달력이 태양력(太陽曆)이다.

지금의 달력이 출현한 것은 1582년 로마 법왕 그레고리오 8세에 의해서다. 400년마다 나타나는 윤년을 3차례 없애는 등 계절과 달력과의 차이를 거의 소멸시키고 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고종 31년 (1894년)부터 이 태양력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달력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은행과 기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달력 제작량을 축소하거나, 아예 만들지 않아 새해 캘린더가 귀하신 몸이 됐다.

그러나 소위 잘나간다는 사람들은 달력을 서 너 개씩 지닌 경우도 있다.

일상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달력. 혹시 여분이 있다면 서로 나눠 쓰는 게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미덕이 아닐는지….

/박치경 체육·여론매체부장unipark@

계란 과잉 생산 산란농가 위기 … 소비대책 시급

요즘 농촌의 산란계 사육 농가들이 생산량이 넘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산란종계 입식이 적정한 규모를 초과할 경우 산란실용계 역시 증가하는 건 당연지사다. 그 때문에 한정된 소비에 달걀이 넘치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요즘은 경기가 안좋아 도시에서 소비가 줄었다.

따라서 계란 가격을 안정화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우유와 쌀이 넘칠 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를 돕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우리 농가들을 돕는 일석3조의 방식을 썼던 것처럼 달걀과 노계도 생산이 과잉될때 이런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도시의 노숙자들을 위해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계란과 닭고기를 더 많이 썼으면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단체나 기관 등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오미영·목포시 해안동

모든 학교서 '인터넷 선플 달기 5분 교육' 하자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은 인터넷 악성 댓글 때문이었다. 하지만 악플러(악플 올리는 사람) 대다수가 어린이나 10대 청소년들이다. 아직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안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악플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 악플에도 쉽게 중독되니 심각한 문제다.

그 때문에 전국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악플 대신 '선(善)플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악플러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어져 있지만 이보다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 예절교육을 제대로 시켜 네티켓을 지키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광주·전남지역 모든 초·중·고에서도 인터넷 선플달기 5분 교육을 실시하자. 또 '선플을 생활화 하자' 혹은 '네티즌은 내 친구'라는 표어나 스티커를 만들어 학교·가정용 PC 등에 붙이자. 악플 달려던 마음이 사라지게 말이다. ▲김기봉·광주시 서구 광천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집부 2200-672 정치부 2200-634 경제부 2200-641 사회1부 2200-612 〈FAX 222-4267〉
사회2부 2200-692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육팀 2200-663 사진부 2200-691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